

제자의 마음자세(누가복음 17)

성경말씀: 눅6:17-26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운다. 유대교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세운다. 이 일을 위해 교회 설립, 많은 제자들, 요한복음 6장 많은 제자들의 반응: 말씀이 어렵도다(60),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음

베드로의 대답(68-69): 1.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2.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와 자세이다. 하나님도 일의 양이 아니라 동기, 사람의 마음자세 12사도를 택하신 뒤 그들에게 제자의 마음자세를 가르치시고 참된 복을 말씀하신다. <제자의 마음자세>

배경

제자들 중에서 12사도 임명, 평야로 내려오심(17): 많은 무리, 동심원의 형태로, 평야 설교 시작 눅6은 산상수훈(마5-7)과 비슷하지만 청중과 장소 등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마태 3장, 누가 1장, 마태 9복, 누가 4복, 마태에는 긍정적인 복도 있는데(온유한 자들, 땅 상속) 누가는 부정적인 복만 이야기한다(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고 따돌림 받고 등).

마태 ...하는 자들은(3인칭) , 누가 ...하는 너희는(2인칭)

마태 영적인 측면(영이 가난한 자), 누가는 물질적인 측면(그냥 가난한 자),

마태는 무리들과 제자들(마5:1), 누가는 구체적으로 제자들(6:20)

아마도 이 둘은 핵심은 비슷해도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대상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됨 눅6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고 따돌림 받는 너희가 복이 있다”고 하심 이것은 마치 원자폭탄과도 같은 설교, 특히 교회에 물질의 복, 육적인 복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1.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20, 24), 첫째 폭탄선언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고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다.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야 한다. 꼭 가난해야만 하나?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난은 저주이지 복이 아니었다(잠10:22).

이집트 탈출 시: 이집트 사람들의 보물(출12:35, 36), 젖과 꿀이 흐르는 땅(신8:7-10)

다윗과 솔로몬 당시의 영화: 복의 상징(대상29:13-16), 주님을 잘 섬긴 유대인들은 대개 부유함 실제로 가난을 겪은 사람에게는 가난 자체가 복이 될 수 없다.

균형 있게 주님의 말씀의 바른 의미를 찾아야 함.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함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로는 가난 자체가 영적으로 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일단 포로가 되어 가난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 당시 부자들은 대부분 바빌론 문화와 타협한 자,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귀환자도 대개 가난한 자들, 부자들은 거기 남음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여전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함, 바로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함, 권세를 잡고 잘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 No! 예수님의 복음 선포 선언(눅4:18):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심(실제로 가난한 자)

이들의 특징: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메시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눅1), 요셉과 마리아(눅1:46-48), 시므온(눅2:25)과 안나(눅2:36-38)

목자들, 침례자 요한 등 다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으로 부자는 대개 무언가 잘못된 사람들(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레위 사람 등 무언가 특권을 가진 사람들, 영적 타락의 수혜자)

성경은 결코 부자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아브라함, 요셉, 다윗,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바울). 그러므로 이 말씀의 복을 받기 위해 가난하고 매일 우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부자도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면 된다. 실제로 나도 여러분과 자녀들이 부유하기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이 주님을 찾기는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어렵다(막10:23-24).

예수님 당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대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다: 메시아 외에는 소망이 없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되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일을 하심(고후8:9)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 가난한 목수, 십자가 형), 눅9:58, 여우 굴, 공중의 새 보금자리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신뢰, 베드로의 믿음 고백(영생의 말씀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들 그리 하잖아요”를 외치지 않은 자들, 실로 자기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눅5:11, 28)
부자의 무제: 1. 돈 때문에 늘 시험을 받는다. 2. 많으면 필요를 못 느낀다. 3. 많으면 자랑한다. 4.

안락 추구, 우리는 어떤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부요하여 부자의 문제에 빠지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20절).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2.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21, 25), 둘째 폭탄선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 배가 고파서 몸이 다 아프다.

시42:1-3, 63:1-2, 다윗의 영적 굶주림은 그를 몸살 나게 하였다.

예수님은 굶주리는 자들, 목말라 하는 자들의 필요를 영원히 만족시켜 주신다(요4:13-14; 7:37-38).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요6:35). 만나를 먹고 굶주렸으나 나는 완전하다(요6:35; 49-50).
골3:1-2의 굶주림

3.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21, 25), 셋째 폭탄선언

항상 울고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다(잠17:22). 행16의 바울과 실라,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런데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영이 슬피 우는 사람에게만 임한다.

온 세상의 하나님 배격, 진화론, 동성애, 성경 변개, 아랑곳하지 않는 성도들, 애통하는 마음
자기의 조국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눅19:41-44)

바울(롬9:1-4)

메르스, 동성애의 창궐, 지도자들의 갈팡질팡, 매체들의 선동, 이복의 핵위협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미디어 선교(중국 선교)

근본적인 해결책: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4. 따돌림을 당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22, 26), 넷째 폭탄선언

사람들이 미워할 짓을 하고는 주님을 위해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 안 된다.

복음 기구 이야기(Joseph Bayly): 조그만 마을, 복음 전하기 위해 기구를 띄움, 성경 구절, 전도지를
뿌리더니 어느 날 확성기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함, 그러자 지역 주민들이 지역
신문에 반대 사설을 내고 급기야 기구를 터뜨림

이것이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인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센스를 주셨다.

이런 일은 남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의가 없고 교만하며 판단하기 일쑤고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다.

그리고도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한다.

여기의 박해는 사람의 아들 때문이다(22).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품으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일할 때 당하는 핍박이 복이 된다. 무례하게 하는 것 No! 오자마자 구원, 치마 등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그분처럼 일하면서 핍박을 당하는가?

그렇게 일하면 정당한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딤후3:12).

반대로 핍박을 피하기 위해 타협하면 사람에게서는 칭찬을 받으나 하나님께는 저주를 받는다(26).

종교통합, 빌리 그래함, 조엘 오스틴, 삼박자 구원, 프렌차이즈 교회, 신사도, 오순정 은사주의
현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교황, 사제).

“죽은 개도 파도에 밀려 수영할 수 있다. 산 개의 특징은 파도를 거스르고 수영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조류를 이겨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교회, 침례, 주의 만찬, 교리 등

결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인격으로 인해 영이 가난한가? 굶주리는가? 슬피 우는가? 따돌림을 당하는가?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다.